九州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Kyushu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抄録公開講座「モダンの文学、モダンなアジア ： 一九二〇、三〇年代の上海、台北、ソウル、そして福岡」

波潟，剛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院 ： 准教授

李，征

呉，佩珍

キム・イェリ

https://doi.org/10.15017/1903750

出版情報：九大日文. 29, pp.117-128, 2017-03-31. 九州大学日本語文学会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초록 공개강좌「모던의 문학, 모던의 아시아 — 1920, 30 년의 상하이, 타이페이, 서울, 그리고 후쿠오카」

나미가타 쓰요시, 리정, 오풍진, 김 예리

필자는 과학연구비조성사업기반 C 「쇼와 모던의 전개(展開)/전회(転回) — 1930-40 년대 동아시아 문화번역의 정치학」(과제번호 : 26370430)의 일환으로, 후쿠오카시 문학관과의 공동주최로, 2015 년 7 월부터 2016 년 1 월에 걸쳐 후쿠오카시 아카렌가문화관에서 총 4 회의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중국, 타이완, 한국의 강사를 초빙하여, 각 지역의 “모던” 혹은 “모더니즘”에 관한 강의를 개최, 매회 15~20 명, 총 60~70 명 정도의 시민이 참가했다. 강좌 전체 내용을 되집어보는 기회가 없었기에, 본지의 지면을 빌려 각 강좌의 초록을 게재하고자 한다.

먼저, 각 회의 강사와 강의 타이틀은 아래와 같다.

제 1 회 리정 (李征, 푸단대학) 「종이 위의 여행 : 중국근대문학에서의 일본표상 유통과 재생산」
제 2 회 오풍진 (呉佩珍,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타이완 모더니즘에서의 문학과 회화 : 1930~40 년대를 중심으로」
제 3 회 김 예리 (강원대학교) 「1930 년대 한국 모더니즘문학과 이상(李箱)」
제 4 회 나미가타 쓰요시 (규슈대학) 「모던도시 후쿠오카의 문학과 문화」

초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순서대로 그 개요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각 회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정순에 구애 받지 않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하, 제 1 회, 제 4 회, 제 2 회, 제 3 회의 순으로, 각 회 담당자의 개요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회 李征 씨의 강의는 중국근대문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 중 하나인 궈모러(郭沫若, 1892-1978)에 주목했다. 李征 씨의 박사논문 테마는 「표상으로서의 상하이」였으며, 1920, 30 년대의 상하이 모더니즘과 일본 모더니즘 문학과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중국근대문학과 후쿠오카와의 접점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는 중국근대작가 궈모러의 초기작품 『목양애화(牧羊哀話)』(단편소설, 1919 년 11 월 15 일, 잡지 『신중국』제 1 권 제 7 호에 게재)에 주목했다. 이것은 궈모러가 일본유학 초기에 쓴 것으로, 중국근대문학 성립기 백화소설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궈모러는 문학활동 외에도 역사학자나 정치가로서도 활약했다. 그가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재학 중에 위다푸(郁達夫)와 창조사(創造社)를 결성, 이 단체가 중국근대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한편

정치면에서는 1950 년대 이후 중국 정무원(政務院) 부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으로 활동했다.

궈모러는 1914 년 도쿄 제 1 고등학교 입학, 1 년 반 후에 오카야마 제 6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리고 1918 년 여름, 제 6 고등학교를 졸업, 규슈제국대학에 입학. 이 때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했다. 시가를 지었으며, 시집 『여신(女神)』은 중국근대시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1919 년 여름부터 괴테의 『파우스트』를 번역. 같은 해 54 운동이 일어났다. 궈모러가 이 시기에 쓴 『목양애화』는 소설로서는 처녀작으로 특별한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후지타 리나(藤田梨那)에 따르면, 『목양애화』는 조선을 무대로, 중국의 "배일(排日)" 감정을 조선인의 입을 빌려 쓴 소설이라고 한다. 궈모러 자신도 『창조십년(創造十年)』에서 소설의 창작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산동문제(山東問題)"와 조선식민지 문제에의 관심이 『목양애화』의 직접적인 창작의도였으며, 기구한 운명에 놓인 양치기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있다.

궈모러의 일본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소설은, 그의 첫 여행체험이 영향을 끼쳤다. 궈모러는 상하이에서 후쿠오카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많은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베이징에서 철도 징펑 선(京奉線)을 타고, 산하이관(山海関), 펑톈(奉天), 안둥(安東), 그리고 조선반도로 들어와서 1913 년 마지막 날에 부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중국 영사관에 머물다가 1914 년 1 월 13 일 배를 타고 도쿄에 도착. 그 후, 10 년 여의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소설의 세계는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계에 있는 산인 금강산을 무대로 전개된다.

『목양애화』의 "금강산"은 소설 첫 부분에 나온다. "금강산의 산령이 나의 혼백을 불러들여, 저 먼 곳에서 조선까지 온 것이다. 조선에 도착하여 이 금강산 기슭의 조그마한 촌락에 기숙을 정했다. 촌락의 이름은 선창리라고 한다." 그러나 풍경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화자인 "나"가 왜 조선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마을에는 십 수채의 집이 있다. 바다를 향해 있고,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낡은 모옥(茅屋), 해변에는 송림이 우거져있다. 마을 근처에 화전이나 뽕나무밭이 있고, 노란 유채꼭이 금색으로 반짝인다. 동남쪽의 송림에 작은 개울이 흐른다. 적벽강(赤壁江)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경묘사 사이사이에 식민지에 대한 나의 감정이 나타난다. "산에서 솟아나온 물이 이 냇가로 흘러들어와, 서글픈 소리를 내며, 난폭한 일본해의 밀물에 집어삼켜진다."

이야기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나" 이외 6 명 정도이다. ①민숭화(閔崇華. 조선시대 귀족, 나중에 관직을 사퇴한다), ②패이(佩荑, 민숭화의 딸. 양치기 소녀), ③이 씨(민숭화의 후처), ④윤 아주머니("나"가 머무는 집의 주부, 윤 씨를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된다), ⑤윤석호(尹石虎, 윤 아주머니의 남편, 국가 노비), ⑥윤자영(尹子英. 윤 아주머니의 아들. 패이보다 한 살 많다), "나"가 조선인 아주머니의 집에 머물던 그날 밤,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비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소설의 구성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양치기 소녀의 이름이 “패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명문가의 딸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양치기 소녀가 되었는지 의문을 가진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패이”는 원래 아버지인 민숭화와 함께 경성에서 살고 있었다. 민숭화는 조선시대 귀족이었는데, 십 수년 전, 간신이 “외인(일본이)”과 “합방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지만 조정에서는 그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민숭화는 결국 관직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경성을 떠나 시골에 은거한다. 윤 아주머니는 이 때부터 민씨 일가의 노비로서 어린 패이를 돌봐왔다. 남편인 윤석호와 아들 윤자영도 마찬가지 노비로서, 민숭화 집에서 일했다.

민숭화의 후처인 이 씨 부인도 또한 명문가 규수로, 어렸을 때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다. 졸업 후, 뉴욕이나 런던, 파리, 빈 등 서양 도시를 여행했는데, 외국에서 체재한 기간이 조선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길었다. 그리고 22 살이 되던 해에 조선으로 귀국. 마침 민숭화의 처(김 씨 부인)가 죽은 지 만 3 년 째 되던 해로, 이후 이 씨 부인은 민숭화의 후처가 된다. 아직 민숭화가 관직을 버리기 전의 일이었다. 경성에서 이 부인은 유명한 “사교가”로서 알려지게 된다. 이 부인이 어울리던 사람들은 주로 일본인이었다.

민숭화는 시골로 옮긴 후, 수 십 마리의 양을 기르면서 윤자영에게 양치기 일을 맡긴다. 윤자영은 패이와 같이 양치기 일을 하게 된다. 후처인 이 씨는 시골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민숭화의 반일사상을 일본인에게 밀고한다. 또한 (일본인 지배자의 지시를 받은 건지) 민숭화를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윤자영의 아버지도 이 암살계획에 동참한다. 윤석호에 비해 아들인 윤자영은 극히 단정한 조선인이었다. 아버지의 음모를 알게 된 윤자영은 민숭화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어두운 곳에서 아들을 민숭화로 착각한 윤석호의 손에 의해 살해당한다.

민숭화의 반일사상은, 「원일행(怨日行)」이라는 시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행”이라는 것은 단지 고체시(古体詩)의 한 양식에 불과하나, “원일”이라는 것은 작가 궈모러가 가상으로 만든 시로, “일본을 원망한다”라는 의미, 반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의 마지막에는 “대유민 민숭화(大遺民閔崇華)”라고 서명이 되어 있다. 윤자영이 살해당한 후, 민숭화는 모든 사정을 알고 분노한다. 이 씨 부인은 음모가 폭로되면서 자살한다. 윤자영의 부친인 윤석호는 도망을 가는데, 그 후 미쳤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소식이 끊긴다. 민숭화는 머리를 깍고 중이 되고, 패이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양치기 일을 하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은 “나”의 꿈으로 끝난다. 그 꿈 속에서, 윤자영의 묘지가 갑자기 무도장으로 바뀐다. 두 명의 소년 소녀가 나체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그 주위에서는 양떼들이 사람처럼 서서 춤을 추고 있다. 또한 사자로 표범도 호랑이도,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한 명의 왜소한 흉한이 다가와서 칼로 “나”의 머리를 자르면서 꿈에서 깬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나”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장의 땅”, “서글픈 국토”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다. “이런 토지에서는 아무도 일 분 일 초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목양애화』라는 단편소설은, 1919 년 잡지 『신중국』 제 1 권 제 7 호에 게재되었지만, 집필시기는 1918 년 봄이었다. 이후 작가 권모러의 소설 처녀작으로서 널리 알려져 갔다. 첫 게재 후, 같은 이름으로 소설집(민국신문학『목양애화』삼련출판사)을 낸 것 이외에도, 작가자선집, 작가문집, 작가전집 등의 형태로 반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다. 이 소설의 수용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자 기호에서 화상 기호로의 변화이다. 즉 “연환화(連環画. 만화와 비슷)의 형태로 출판되었다(상하이 인민미? 출판사, 1957 년 3 월). 문자가 있는 그림책으로, 이 소설에 의해, 일본 표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 “어린이” 세계에도 침투해 갔다. 그림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문자 표현과 달리, 일본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누구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이 연환화판『목양애화』가 복각의 형태로 재출판되었다. 그 영향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루쉰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 권모러의 소설이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은, 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광수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학자들의 “모던(근대)”을 고찰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후쿠오카와 중국 근대문학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권모러와 마찬가지로 규슈제국대학에서 유학한 타오징쑨(陶晶孫, 1897~1952)이 귀국 후 상하이에서 신감각파 문학을 썼다는 점도 언급해 두고 싶다.

이렇게 해서 1910 년대 말, 중국 문학자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강의가 있은 후, 제 2 회 이후는 1920 년대부터 1940 년대로 시대가 이동했다. 여기서 개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자면, 문학을 논할 때의 “modern(모던)”이라는 구분은 ① “modernization(도시화=근대화)” 속에서, ② “modernity(도시 군중과 개인의 소외감)”가 문제되기 시작하여, 이것들을 ③ “modernism(새로운 문학표현, 운동)”가 체현하던 시대라고 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19 세기말부터 20 세기 중반으로 상정, “근대”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범위에서는 1920 년대부터 30 년대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으로 규정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다이쇼 말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서 “모던 걸”을 발단으로 하여 “모던”이 유행어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휘, 유행어로서의 “모던”과, 협의의 “모더니즘” 문학 시대가 겹친다. “모던 걸”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기타자와 히데카즈(北沢秀一) 「모던 · 걸(モダーン · ガール)」『죠세이(女性)』(1924 년 8 월)이라고 알려져 있다. 니이 이타루(新居格)는 그 이듬해에 「근대여성의 사회적 고찰(近代女性 の 社会的考察)」 (『다이요(太陽)』 1925 년 9 월)이라는 글을 발표, 같은 호에 기무라 기(木村毅)의「최근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예술화된 모던·걸 고찰──(最近の小説に現れた女性──芸術化されたモダーン・ガールの考察──)」도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요사와 기요시(清沢洌)『모던 · 걸(モダン・ガール)』(긴세이도(金星堂), 1926 년)이나 가타오카 뎃페이(片岡鉄兵) 『모던걸 연구(モダンガアルの研究)』(긴세이도, 1927 년)이 간행되는 등, "모던 걸"이 유행어가 되었다.

그 후, 「근대생활좌담회(近代生活座談会)」(『분게이슌슈(文芸春秋)』 1928 년 1 월), 「모던생활만담회(モダン生活漫談会)」(『신쵸(新潮)』1928 년 1 월) 등의 좌담회나,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모던걸을 말하다(モダーンを語る)」(『주오코론(中央公論)』 1928 년 11 월), 오야 소이치(大宅壮一) 「모던층과 모던상(モダン層とモダン相)」(『주오코론』1929 년 2 월), 세누마 시게키(瀬沼茂樹) 「모더니즘과 그 제상(モダニズムと其の諸相)」(『히토쓰바시분게이(一橋文芸)』 1929년 5월), 특집「모던·일본의 근경(モダン·日本の近景)」(『주오코론』 1929년 10 월), 히라바야시 하쓰노스케(平林初之輔) 「쇼와 4 년 문단 개관 8, 모더니즘 전성(昭和四年の文壇の概観 八、モダーニズム全盛)」(『신쵸』1929 년 12 월), 앙케이트「1. 구가해야 할 모던 제상, 2. 배격해야 할 모던 제상(1・謳歌すべきモダン諸相、2・排撃すべきモダン諸相)」(『모단니혼(モダン日本)』 1930 년 10 월), 류탄지 유(龍胆寺雄) 「모더니즘 문학론(モダーニズム文学論)」 (『신문학연구 제 2 집』1931 년 6 월)과 같은 평론이나 특집기사 등이 등장, 이 시기에는 "모던"이라는 용어을 사용한 유행어사전도 출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쿄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지방 도시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제 4 회 공개강좌에서는 지방도시 후쿠오카를 예로, 모던 도시문화의 성립과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 나미가타가 강의했다.

다이쇼 말에서 쇼와 초기의 후쿠오카에서는, 도시인프라가 정비되어 갔으며, 백화점이나 카페와 같은 모던 소비문화 거점도 차례로 탄생했다. 문학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쇼와기에 들어가면 규슈제국대학 문예지 『지쿠시분가쿠(筑紫文学)』창간에 이어, 야마다 가조(山田牙城), 하라다 다네오(原田種夫), 호시노 다네히로(星野胤弘) 등의 시 문예지『덴칸뵤인(癲癇病院)』, 이마이 신노스케(今井慎之介) 시문예지 『슈조(衆像)』를 시작으로, 『신파쓰타이(先発隊)』, 『지유게이주쓰(自由芸術)』, 『규슈시단(九州詩壇)』과 같은 시 문예지가 차례차례로 창간되었다. 또한 1935 년경에는 총합적 문예지도 창간되었는데 『규슈게이주쓰(九州芸術)』, 『규슈분카(九州文化)』, 『규슈분단(九州文壇)』, 『분가쿠카이기(文学会議)』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지방 문단융성의 기운이 높아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메노 규사쿠나 히라노 아시헤이 등 저명한 문학자를 배출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유마니쇼보 〈컬렉션·모던 도시문화(コレクション·モダン都市文化)〉90 권 『하카타의 도시공간(博多 の 都市空間)』나미가타 쓰요시 편(2013 년) 수록의 에세이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동아시아라는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1932 년 창간된 잡지 『하카타슌슈(博多春秋)』 편집장이었던 니시구치 시메이(西口紫溟)가 흥미롭다. 니시구치 시메이(1896~1977)은 구마모토 시에서 태어나서,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후, 1918 년부터 22 년까지 타이완에서 살았는데, 이 때, 타이완신문편집국에서 일하면서 단카잡지 『닌교(人形)』를 창간, 시집 『남쪽 나라의 노래(南の国の歌)』나 『생번신화(生蕃神話)』, 『남국이야기(南国物語)』를 창간하기도 했다. 그 후, 1922 년 시모노세키 바칸마이니치 신문사에서 편집장 겸 사회부장이 된다. 그 후, 플라톤 사에서 『구라쿠(苦楽)』 편집장을 담당, 삽화 화가인 다케나카 에이타로(竹中英太郎)를 스카우트하게 된다. 이것이 유메노 규사쿠와 다케나카 에이타로와의 만남을 가능케 했다.

중국편의 궈모러와 타오징쑨와 같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니시구치와 같이 동아시아 체재를 거쳐 일본의 모던 문화 창조에 힘쓴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강의에서 언급한 후쿠오카,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모던문화, 모더니즘 문학의 동시성과 상호 교류・침투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는 각국 문학사를 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상호비교라기보다도 복수의 지역에 걸친 문학・문화사를 상정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4 회의 공개강좌 참가자를 확인해 보면, 4 회 모두 참석한 참가자는 없으며, 한 회씩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각각의 관심이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거나 혹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미의 모던, 모더니즘이라는 틀을 시야에 넣으면서, 동아시아에서 보급돼 갔던 모던, 모더니즘으로의 전반적인 흥미를 끌어낼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제 2 회 타이완에서는 문하과 예술이 주제가 되었다. 타이완 신문학의 발전은 1932 년 도쿄 타이완 유학생에 의한 타이완예술연구회 성립에서 시작한다. 1933 년 문학잡지 『포모사(フォルモサ)』(전 3 호)의 성립은, 『포모사』 창간사에서 「타이완은 지리적으로는 열대 특유의 자연에 접해 있으며, 정치적 인종적으로는 중국 속령에서 우리 나라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는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고사민족(高砂民族)」, 타이완인, 내지인이 혼거하고 있다. (중략) 타이완 청년 제군이여!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타이완 문예운동이 우리 청년의 손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중략) 우리들은 이것으로 우리들이 창간하는 문예의 힘에 의해 진실로 「아름다운 섬(麗しの島)」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후오르모사』 창간호, 1933 년 7 월)라고 말한다. 동인은 왕바이위안(王白淵), 장원환(張文環), 오곤황(呉坤煌), 우융푸(巫永福), 웡나오(翁鬧) 등이었다.

타이완의 모더니즘과 그 작가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우융푸(1913~2008)은 타이완 난터우 출신이다. 호는 융저우(永州), 필명 텐찌하오(田子浩). 1929 년 나고야 제 5 중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메이지 대학

문예학과에 진학한다. 메이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기쿠치 간, 요코미쓰 리이치 등에게 배웠다. 당시 모더니즘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신감각파 그리고 요코미쓰 리이치의 영향이 컸다. 작품으로는 「머리와 몸(首と体)」 (『포모사』 창간호, 1933 년 7 월) , 「홍연적(紅緑賊)」(『포모사』 제 2 호, 1933 년 12 월), 「흑룡(黒龍)」(『포모사』 제 3 호, 1934 년 9 월), 「잠자는 춘행(眠い春杏)」(『타이완분게이(台湾文芸)』 3 권 2 호, 1933 년 7 월) 등이 있다. 데뷔작 「머리와 몸」은 요코미쓰 리이치의 「머리 그리고 배(頭ならびに腹)」의 영향이 지적되어 왔다. 모더니즘 기법으로부터의 영향은 “의식의 흐름”, “심경묘사” 등이 특징적이다. 제재에 있어서도 일본을 무대로 한 것은 “도회, 그리고 “연애”를 주제로 한 것이 많다. (「머리와 몸」, 「동백꽃(山茶花)」 등). 타이완을 소재로 한 것은 하층사회 즉 “프롤레타리안”적인 소재가 많다(「흑룡」, 「잠자는 춘행」 등).

웡나오(1910~1940)은 타이완 장화 출신이다. 1940 년 도쿄에서 타계했다. 타이중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위안린 공학교 등에서 가르쳤다. 1935 년 도쿄에 가서 “중앙문단”에서 활약할 것을 꿈꿨다. 창작기간은 6 년밖에 안 됐지만, 일본 식민지기의 일본어문학 작가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데뷔작은 (시) 「담수 해변에서(淡水の海辺に)」(『포모사』 창간호, 1933 년 7 월). 대표적인 작품은 「노래 시계(歌時計)」(『타이완분게이』 2 권 6 호, 1935 년 6 월), 「곤야(憨爺)」(『타이완분게이』 2 권 7 호, 1935 년 7 월), 「잔설(残雪)」(『타이완분게이』 2 권 8·9 호, 1935 년 8 월), 「나한각(羅漢脚)」(『타이완신분가쿠(台湾新文学)』 창간호, 1935 년 12 월), 「불쌍한 루이 할머니(哀れなルイ婆さん)」(『타이완분게이』 3 권 6 호, 1936 년 5 월), 「동트기 전의 사랑 이야(夜明け前の恋物語)」(『타이완신분가쿠』 2 권 3 호, 1937 년 1 월). 도쿄를 소재로 한 작품은「노래 시계」, 「잔설」, 「동트기 전의 사랑 이야기」 등으로, “연애지상주의”의 영향으로 “연애”를 테마로 한 것이 많다. 또한 심리묘사롸 “독자체”가 많이 발견된다. 타이완 농촌을 소재로 한 것에는 「곤야」, 「나한각」, 「불쌍한 루이 할머니」가 있다. 특징은 타이완 농촌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인공이 항상 “근대화”라는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다.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를 그리는 것 보다, 근대화가 낳은 딜레마를 그리려고 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는 마찬가지 심리묘사와 “독자체”가 많다. 신감각파와의 유사성이 있으며, 동시대 타이완 작가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서는 “실패작”이라고 평가 받았다.

양츠창(楊熾昌, 1908~1994)는 타이난 출생이다. 필명은 수이인핑(水蔭萍), 유원교(柳原喬), 도아부(島亜夫) 등이다. 1930 년 도쿄문화학원에 입학하여 유학 기간 동안 『시노키(椎の木)』, 『고베시인(神戸詩人)』, 『시학(詩学)』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1934 년 타이난 염분지대의 동인들과 동인시집 『르 물랑(Le Moulin)』(1933 년 10 월부터 1934 년 9 월)을 발행했다. 1933 년부터 『타이난신보(台南新報)』 학예란 주필, 1939 년 “타이완시인협회” 회원이 된다.

니시와키 준자부로(西脇順三郎)에 심취해서 초현실주의 기법을 시작에 도입, 타이완에 초현실주의를 소개한다. 또한 당시의 모더니즘으로 대표적인 본서점에서 처녀시집 『열대어(熱帯魚)』(본서전, 1931 년)을 출판했다고 하는데, 출판을 목전에 두고 무산되었다. 특징은 초현실주의 기법을 구사하면서 타이완 열대풍토를 그렸다는 점이다.

미술 면에서도 주목할 인물이 있다. 타이완 근대미술을 추진한 인물로서 두 명의 일본인을 들 수 있다. 한 명은 이시카와 긴이치로(1871~1945), 시즈오카현 출신으로 영국에서 유학하여 수채화를 배웠다. 후에 타이완 근대미술이 수채화로 시작된 것은 이시카와의 추진에 의한 것이다. 타이완 신미술운동에서 초기의 화가 결성으로서 알려진 “칠성화단”(1924 년)이나 “타이완수채회화”(1924 년)도 타이완 사범학교 문하생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또 한 명은 야수파(포비즘)의 전승자가 된 시오쓰키 도호(1886~1954)이다.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1912 년 도쿄미술학교 졸업, 1921 년 타이완에 가서 타이페이 고등학교와 타이페이 제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이시카와와는 대조적으로 유화를 전문적으로 그렸다. 또한 서양 미술유파, 인상파, 야수파, 초현실주의 큐비즘 등을 타이완의 미술교육 커리큘럼에 도입했다. 1930 년 우서사건으로 망연자실한 시디그족의 모자를 소재로 한 「어머니(母)」라는 대형유회 (전시 중 소실되었다)를 1932 년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양화 화가인 이시카와 긴이치로와 시오쓰키 도호, 그리고 동양화 화가인 고바라 고토(郷原古統)와 기노시타 세이가이(木下静涯)의 4 명으로 결성된 “구로쓰보 회(黒壷会)”는, 매년 신작을 발표하는 전람회를 개최한다. 이 4 명은 타이완 총독부의 지지를 받아 1927 년 “타이완미술전람회” (타이덴(台展)) 을 설립한다. 나중에 “후덴(府展)”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이완 모던 미술 화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황토수(黄土水, 1895~1931)는 타이페이 출신의 조각가. 국어학교(후에 타이페이 사범학교)에 입학한 후, 조각 재능을 교사 우메무라(梅村)에게 인정받아, 교장의 추천으로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한다. 다카무라 고운(高村光雲)의 문하에 들어가, 그 아들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와 교우를 가지면서 그의 포스트 인상파에 영향을 받는다. 1919 년 「산동취적(山童吹笛)」으로 “데이덴(帝展)”에 입선, 타이완 최초의 입선자가 된다. 이 후 「사슴(鹿)」, 「감로수(甘露水)」(제 3 회 데이덴 입선), 「교외(郊外)」(제 5 회 데이덴 입선) 등 차례로 “데이덴”에 입선한다. 생애에 걸쳐서 타이완 농촌풍경만을 창작 소재로 삼았지만, 서구 기법으로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타이완 모던 미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천정보(陳澄波, 1895~1947)은 자이 출생의 서양화 화가이다. 1913 년 국어학교 입학 후, 도화교육을 받았다. 이시카와 긴이치로가 두 번째 타이완에 오면서, 이시카와에게 회화를 배우게 된다. 1924 년 도쿄미술학교 합격, 와타나베 이타루(田邊至)와 오카다 사부로(岡田三郎)에게 사사했다. 1927 년 제 7 회 데이덴에

입선한 작품 「가의가외(嘉義街外)」는 르네상스 이후의 투시법을 구사하면서 고향 자의의 풍경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1927 년부터 1933 년까지, 상하이 신화예서양화과 주임, 창밍 예전 예교수를 역임하고, 상하이 화단에서도 활약했다. 1933 년 이후 타이완으로 귀국하여 타이양 미술협회에도 관계한다. 1927 년 228 사건에 연루되어 자이역 앞에서 국민군에 의해 공개 총살되었다. 타이완의 대표적인 근대 화가 중 한 명이다.

또한 천진(陳進, 1907~1998)은 전전 유일한 근대 여성화가이다. 동양화 화가. 신주 출생. 제 3 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미술교사 고바라 고토에게 인정받아 졸업 후 도쿄 여자미술학교에 입학했다. 도쿄 유학 기간 중 가부라키 기요카타(鏑木清方) 등에게 미인화를 배웠다. 1927 년의 「모습(姿)」, 「아침(朝)」, 「양귀비(罌粟)」세 작품은 모두 제 1 회 “타이덴”에 입선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임옥산(林玉山), 곽설호(郭雪湖)와 함께 “타이덴 3 소년”이라고 불렸다. 1934 년 제 15 회 데이덴에 입선한 작품은, 귀성했을 당시, 여동생인 천신(陳新)을 모델로 해서 당시 유행하던 상하이 패션이었던 “장삼(長衫)”을 몸에 걸친 타이완 여성이 월금과 피리를 합주하는 장면을, 일본의 동양화 기법으로 그려냈다. 이 입선을 계기로 타이완 최초 고등여학교 미술여성교사가 되었다. 1930 년 타이양 미술협회 회원이 되었으며, 그 후, “타이덴” 심사위원, “후덴” 추천부문 화가가 되었다.

이러한 타이완에서의 사정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타이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일본어로도 읽을 수 있는 문헌이 많아질 걸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제 4 회 한국 펴넹서는 건축, 회화, 시, 수필, 소설의 세계를 넘나든 작가가 등장한다. 이상(1910~1937)은, 지금까지의 많은 한국 작가 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이고 독특한 작가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이다. 이상이 활약하던 1930 년대에, 그는 비평가로부터 “조선 최고의 모더니스트”라고 불렸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 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한국 최고의 모더니스트”라고 불리고 있다.

이상은 시인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했고 또한 수필가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화가였으며 삽화작가였으며 건축가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린 것이 아니라, 시나 소설 또는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경계 그 자체를 초월한 작가였다. 실제로 그의 텍스트 장르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시와 수필과의 경계, 시와 회화와의 경계, 소설과 수필과의 경계를 이상은 간단히 초월한다. 말하자면 그는 오늘날 현대예술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한국 최초의 멀티 아티스트였으며 하이브리드 아티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1930 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구인회(九人會)’라는 모더니즘 예술집단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상 역시 ‘구인회’의 핵심 멤버였고, 이상 이외에도 정지용(鄭芝溶, 1902~1950), 이태준(李泰俊, 1904~1956), 김기림(金起林,

1908~?), 박태원(朴泰遠, 1909~1987), 김유정(金裕貞, 1908~1937) 등이 '구인회'의 멤버로서 활동했다. 이 집단의 독특함은 집단의 집단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특별한 문학 이념이나 지향점을 내걸지 않았고, 그야말로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청년들의 모임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다. 그들은 1925 년에 조직된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들의 집단 카프(KAPF,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처럼 행동강령이나 조직의 이념을 내세우지 않았고, 조직을 이끌어나갈 리더 격의 인물도 선출하지 않았으며, 표나는 조직의 이념을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회원들의 문학적 성향도 통일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단지 사적인 친분으로도, 공적인 관계로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문학적 유대의식이 있었다.

30 년대 한국 모더니즘의 중핵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상은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의 근대적 지식과 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즐기기만 한 철없는 모던보이만은 아니었다. 그는 근대를 동경하는 모던보이에 조선 최고의 모더니스트였지만, 동시에 이상은 날카로운 감각으로 근대라는 세계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읽어내고 작품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상이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모던한 세계에 대해 이런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가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정체성(identity)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본 제국의 수탈 대상으로 전락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야말로 근대라는 빛나는 세계가 거느린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상은 한일병합이 되던 해인 1910 년에 태어났다. 복잡하고 슬픈 가정 환경 속에서 내성적인 아이로 커 가던 이상은 문학보다는 그림에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집안 사정 상 그림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던 그는 대신 1926 년 4 월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입학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된 경성고공은 일본이 조선에 설립한 최고의 이공계 관립 전문학교로, 식민지 개발과 지배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고급 기술자나 경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학교였다.

이곳에서 이상은 수학을 배우고, 각도를 배우고, 숫자와 선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설계도와 조감도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청사진을 찍는 법을 배운다. 경성고공에서 배운 건축학적 지식은 이상의 문학적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실제로 이상의 문학적 세계에는 이러한 건축학적인 상상력이 매우 자주 발휘되고 있다. 이상의 작품 중에서 <오감도(烏瞰圖)>, <조감도(鳥瞰圖)>, <삼차각설계도(三次角設計圖)>, <건축무한육면각체(建築無限六面角體)>와 같은 연작시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차각설계도>나 <건축무한육면각체>와 같은 연작시들에서 이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나 만날 수 있을 법한 독특한 시간 이론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시는 전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학에 대한 이상의 관심이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경성고공을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건축과에 취직해 다니고 있던 이상은 1931 년 제 10 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자상(自像)>을 출품해 입선을 하기도 한다. 입선한 그의 그림은 당대 미술 평단으로부터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신경의 활동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어떻게 본다면 1931 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은 이상이 건축가로서 건설 현장에서 펼칠 수 없었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상상력이 그림으로 터져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전람회 입선뿐만 아니라 이상은 1930 년 12 월 ‘조선건축회’의 학회지 『조선과 건축』의 표지 도안 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각각 1 등과 3 등으로 당선되었고, 이때 1 등으로 당선된 이상의 도안은 1931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조선과 건축』의 표지 도안으로 실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상은 당대 함께 활동했던 소설가 박태원의 소설에 삽화를 그리기도 했고, 1936 년에 출판된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의 편집을 주도적으로 맡아 아주 독특하고 모던한 시집을 출판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이상은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서 매우 전위적으로 활동한 예술가였다.

하지만 이상은 그리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폐결핵 환자였고, 이상이 활동하던 1930 년대에 결핵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나 도저히 자신의 의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스러운 감정이 매우 자주 표출되곤 한다.

병 때문에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상은 지방의 한 온천으로 요양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이상은 ‘운명’처럼 그가 유일하게 ‘아내’라고 불렀던 연인 ‘금홍’과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상에게는 모두 세 명의 연인이 있었다. 첫 번째 연인은 앞서 말한 금홍이고, 두 번째 연인은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전집을 다 읽었을 정도로 교양과 지식이 풍부했던 다방 여급이었고, 1937 년 이상이 일본 동경에서 외롭게 죽어갈 때 그의 곁을 지켰던 변동림이 그의 마지막 연인이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는 소설 「날개(翼)」에 나오는 금홍이다.

뭔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는 소설 「날개」는 매춘부인 아내와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이 무능력한 남편은 이상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고, 매춘부 아내는 물론 ‘금홍’이다. 금홍이는 이상보다 두 살 아래로 온천 여관에서 고용한 기생이었다. 사실 조선 시대 기생은 양반에게 술을 따르고 몸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즘으로 치면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비록 신분상으로는 천한 존재였지만, 양반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 식민치하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선의 문화는 매우 왜곡되고 비틀려 버렸다. 기생 역시 싸구려 술집 작부나 매춘부와 다를 바 없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금홍이는 바로 몰락한 기생, 비천한 매춘부였다.

그런데 근대의 첨단 지식과 문화를 알고 있던 이 엘리트 지식인 이상은 이 비천한 금홍이에게 사랑을 느낀다. 「봉별기(逢別記)」라는 소설에서 이상은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외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했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이들은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순탄하지 못했고 불행하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이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인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누구보다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상은 가족의 불행과 폐결핵이라는 죽음의 병, 그리고 절름발이처럼 삐걱대는 사랑이라는 운명과의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상은 자신이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병든 몸을 이끌고 일본 도쿄로 건너간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이상은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삶을 문학으로, 또 예술로 꽃피워냈다.

이상과 같이, 공개강좌를 통해서 중국, 타이완, 한국, 일본의 모던, 모더니즘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 강좌 때 배부한 참고문헌을 덧붙인다.

공개강좌「모던의 문학, 모던의 아시아」참고도서 (＊부제는 생략)

시로야마 다쿠야『중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벤세이출판, 2014 년
스즈키 사다미・리정 편저『상하이 100 년』벤세이출판, 2013 년
스즈키 마사히사『상하이 모더니즘』주고쿠분코, 2012 년
리정『표상으로서의 상하이』도요쇼린, 2001 년
와다 히로후미 편『언어도시・상하이』후지와라쇼텐, 1999 년

가와하라 이사오『타이완신문학운동의 전개』겐분출판, 1998 년
다루미 지에『타이완의 일본어문학』고류쇼인, 1995 년
후지이 쇼조『타이완문학 100 년』도호쇼텐, 1998 년
야마구치 마모루 편『강좌 타이완문학사』고쿠쇼간행회, 2003 년
페이 인 그리만『대일본제국의 크레올』게이오기주쿠 대학 출판회, 2007 년

가와무라 미나토『서울도시이야기』헤이본샤 신서, 2000 년
김진송『서울에 딴스홀을』호세이 대학 출판회, 2005 년
신명직『환상과 절망』동양경제신보사, 2005 년
나카네 다카유키『〈조선〉표상의 문화지』신요샤, 2004 년
남부진『근대문학의〈조선〉체험』벤세이출판, 2001 년

이노우에 세이조『하카타 다이쇼 세상사』가이쵸샤, 1987 년
사쿠야마 교조『하카타 나카스 이야기 (후편)』분켄 출판, 1980 년
후쿠오카시 흥행 협회『하카타・극장 50 년』후쿠오카시 흥행 협회, 1972 년

후쿠오카시 총합도서관 문학・문서과 편『카페와 문학』후쿠오카시 총합도서관, 2002 년
『후쿠오카 미스터리 안내』후쿠오카시 문학관, 2006 년

＊유마니쇼보〈컬렉션・모던 도시문화〉
83 권『조선반도의 모더니즘』니시무라 마사히로 편, 2012 년
84 권『타이완의 모더니즘』미즈타니 마키 편, 2012 년
85 권『만주의 모더니즘』고이즈미 교미 편, 2012 년
90 권『하카타의 도시공간』나미가타 쓰요시 편, 2012 년

●본고는 과학연구비조성사업기반C「쇼와모던의 전개/전회 － 1930~30 년대 동아시아 문화번역의 정치학」(과제번호：26370430) 에 위한 연구성과의 일부이다.